월요논단

김 봉 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보육현장 아동학대의 근본적 접근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대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들 수 있으나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로 현재 5년이 지났지만 CCTV 설치가 아동학대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 하고 있다.

물론 CCTV도 '아동학대의 증거'와 같은 부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 목표인 아동학대의 감소를 위해서는 학대의 발생 원인과 사후 관리에 우선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 행위의 여러 원인 중 교사의 스트레스와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교사로서의 사명감 부족 등이 있다.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그대로 교사의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교사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교사의 사명감 부족 역시 아동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자격과 관련이 있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루트들이 존재한다. 짧으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취득이 가능하며 자격증 취득 허들이 낮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접근과 취득이 쉬운 만큼 교사로서의 충분한 자질이나 사명감을 가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교사의 스트레스가 인내되지 못하고 그대로 아동에게 풀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동 학대 예방은 이와 같은 학대 원인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해결 방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학대에 의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신고의무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동료 교사 혹은 원장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아동에게 가정에서의 학대의혹 증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과 인식이 조성되어야 한다.

작은 학대 증후일지라도 국가에서는 면밀히 조사를 하고 강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대 피해 아동의 80% 이상이 원가정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매년 증가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 보호를 위해 신설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들 역시 적은 중앙예산, 과도한 업무들로 인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세심한 보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대 신고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자인 교사의 신고 동기가 약화되기 때문에 아동 학대에 대한 빠른 조치가 불가능하게 된다.

자아가 완성되지 않고 어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은 다른 누군가에 학대가 발견되기 전까지 학대 행위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매우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아동학대를 자극적인 하나의 이슈거리로 보고, 이슈화된 아동학대 사건만을 급급히 해결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아동학대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열린마당

한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960원?

정 근 식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관리팀장

50대에 접어든 가장인 나의 주된 가사 분담은 쓰레기 버리기이다. 보통 2~3일에 한번 정도하는데 요즘처럼 추운 날은 정말 귀찮은 일인 것은 분명하나 아내의 잔소리를 듣느니 궁시렁 거리며 클린하우스로 향한다.

기왕에 나온거 그래도 재활용품 분리 배출은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 품목별로 나누고 음식물이 잔뜩 묻어 씻겨지지 않고 오염된 프라스틱 같은 것은 종량제 봉투로 다시 넣어서 버리면 분리배출은 끝난다.

이제 가장 귀찮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차례다. 클린하우스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RFID 배출기에서 배출량은 1.5kg이고 45원이 결제됐다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어! 처리 비용이 45원이라고? 음식물 쓰레기를 일주일에 4번, 매번 2kg 정도 버린다고 가정하면 월 처리비가 960원?"

편의점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이 보통 1200원 정도인데 우리 가족이 한달 동안 버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편의점 아메리카 한잔 값보다도 저렴하다.

모르긴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공공요금 중 가장 저렴한 것 같다.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구입하는 20ℓ종량제 봉투도 700원인데 말이다.

환경보전 관련 원칙 중에 가장 잘 알려지고 중요한 것이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일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너무 저렴해서 오염원인자인 내가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적은 비용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고마워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차례는 각자 집에서… 간소화 뚜렷"

새뱃돈도 모바일로 전달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된 상황에서 맞은 설 명절에 제주도민들은 친척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던 예년과는 달리 각자 집에서 지내는 등 간소화 분위기가 뚜렷.

또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뵐 때도 오전, 오후 등 시간차를 두고 방문해 잠깐씩만 머무는 등 대체로 거리두기 수칙 지키기에 노력.

한 도민은 "예전과 달라진 설 풍경이 생소하면서도 점차 명절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적잖았다"며 "조카들에게 세뱃돈은 모바일로 줬다"고 전언. 문미숙기자

헌혈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

○…제주시가 올해 헌혈 참여 민방위 대원 및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에 대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방침.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키로 한 가운데 코로나로 혈액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한 관계자는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교육 1시간만 이수하면 된다"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이윤형기자

소라 소비 나선 공직자들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일본 수출 부진과 국내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해녀와 어민들을 돕기 위해 소라 구매 촉진 행사에 나서 눈길.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 맞이 소라 구매 행사를 실시한 결과 삶은 소라(500g) 360여개를 판매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14일 설명.

도 관계자는 "설을 맞아 해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한마디. 이상민기자

사설

최악의 취업난… 도정은 응답하라

도내 노동시장이 코로나19 여파에 사상 최악이다. 원래 일자리 부족한 제주지역 상황에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 여파다. 신규채용은 고사하고 '권고사직'까지 당하는 현실이다보니 유례없는 실업률에 사회 곳곳이 고통·한탄에 젖어 있다. 구직자들이 연초부터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도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할 이유다.

제주지역 취업난은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만이 아닌 중·장년층, 취약계층까지 모든 계층·연령대에 넘어서기 힘든 '파고'로 덮쳤다. 청년층 일자리 부족이 일상화된 현실속에서 권고사직에다 무급휴직 등을 당한 도시 서민들이 속출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 왔다. 일자리 없이 새해를 맞은 그들은 한결같이 "날이 갈수록 취업은 막막하고, 미래는 암울하다"고 얘기한다.

현 상황은 통계수치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통계청 집계결과 작년 도내 실업률은 2.5%를 기록, 지난 2005년(2.5%) 이후 최고치로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특히 통계청의 '제주도 올 1월 고용동향'을 보면 도내 실업률은 5.2%를 기록, 전년 동월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는가 하면 과거 월별 최고치였던 1999년 7월 4.4%를 웃돌아 충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신규 채용 감소와 관광객 급감 등이 주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도정이 연초부터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코로나19 방역 못지않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할 때다. 도가 기존 추진해 온 그린·디지털 뉴딜로 대표되는 제주형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고, 여타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들도 조기 시행해야 한다.

멸종위기 구상나무 살릴 기회로 삼아야

한라산을 말할 때 구상나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구상나무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자생한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한라산이 세계 최대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 구상나무가 한라산을 대표하는 수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한라산 구상나무의 집단고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 구상나무의 집단고사는 심각하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한라산 구상나무림이 15%(112ha) 감소했다. 10년새 마라도 면적의 3.7배가 넘는 구상나무림이 사라진 셈이다. 세계유산본부가 2019년 한라산 구상나무의 지리정보화(GIS) 작업 결과 49만 6775그루 중 18만630그루가 죽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도 한라산 구상나무의 집단고사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일깨웠다. 2016년 4월부터 3년간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드러난 것이다. 국내 최대 고산침엽수 군락지인 진달래밭 일대 구상나무림이 90% 가까이 고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도 2011년에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상태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토종 미생물을 활용해 멸종위기에 놓인 구상나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한라산에서 발견한 토종 균근균을 구상나무 어린나무에 접종한 결과 생존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균근균을 구상나무 1년생 묘목에 접종한 결과 생존율이 평균 97%로 나타났다. 균근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67%)보다 1.5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알다시피 구상나무는 어린 단계에서 생존율이 낮아 자생지 복원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발견한 토종 미생물을 이용해 멸종위기의 구상나무림을 살리는 일대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부 고

이영주 어머니 **인동장씨 옥순(향년 93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10일 02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15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16일(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양지공원

남편 이종석
아들 이영주 / 며느리 김점애
영철 / 황애숙
영재
영준 / 김은희
영상 / 성의현
손자 이동수 / 손녀 이유진
동현 / 유현
동욱 / 진
혜윤
하림
하리
손서 성낙창

※연락처 : 이영주 010-9646-8898
이영준 010-9244-8872

부 고

강병선 어머니 **해주최씨 순덕(향년 71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14일 오전 11시 57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16일(화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17일(수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301호 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극락사

남편 강창하
아들 강병선 / 며느리 김정미
행선 / 이영주
병준 / 백명순
손자 강현우 / 손녀 강현비
현수 / 현서
현승 / 현다
현규 / 현지

※연락처 : 강창하 010-3692-2714
강병선 010-3352-2797
강행선 010-8714-8831
강병준 010-5436-586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순화(향년 9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15일

아들 박문기 / 며느리 이영선
문철 / 김은희
딸 박혜숙 / 사위 이문선
경숙 / 고창익
찬희 / 부영인
영희 / 신석하
순희 / 김병수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 성 명 : 망 정군수(1952. 7. 12.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오도길 39, 비동 105호 (이호이동, 대성연립)

상기자는 2020년 9월 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2월 2일 제주지방법원 2020느단1029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만덕로3길 26, 107동 103호 (건입동, 현대아파트)

2021년 2월 1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정 민 숙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